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19.12.23~20.01.03)

- **외국인 건설 근로자에 대한 지원의무의 일부를 업계단체가 무상 실시·불법근로방지에 원도급자에 의한 현장 확인 원칙화 [12/23]**
 - 국토교통성은 건설 분야에서 재류 자격 「특정 기능」의 외국인재를 수입함에 있어서 2019년 12월 23일 특정기능외국인의 적정한 근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기능외국인 수입 사업을 일원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건설업체단체를 구성원으로 설립한 「(일반사단법인)건설기능인재기구(JAC)」에 대해 「적정 근로감리기관」 및 그 업무를 정하는 통지를 내리고, 건설업체 단체 앞으로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원도급 기업이 해야만 하는 역할을 제시한 「하도급지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통지를 내림.
 - 「적정 근로감리기관」은 외국인 건설 근로자 수입 사업에서 순회지도의 풍부한 경험(3000기업 이상 순회지도 등을 실시)이 있고, JAC가 규정하는 업계공통 행동규범에 따라 순회지도 등을 위탁처로 운영되어 있는 (일반사단법인)국제건설기능진흥기구(FITS)를 선정함.
 - 「적정 근로감리기관」은 ① 특정 기능 외국인에 대한 수입 후 강습 실시, ② 수입 기업에 대한 순회지도, ③ 수입 기업을 통하지 않고 특정기능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국어 근로 환경 상담 핫라인 업무를 실시함.
 - 특정기능제도의 개시와 함께 201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건설근로자 수입사업과 함께 외국인이 현장에 입장할 때에는 하도급기업이 원도급 기업에 제출한 현장입장신고서와 각 첨부서류의 기재서류의 무결성을 원도급 기업이 확인해야만 하는 것으로 「하도급지도 가이드라인」을 개정.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교외의 냉동냉장창고 정비 및 운영 사업에 JOIN출자 인가 [12/24]**
 - 국토교통성 장관은 2019년 12월 24일 JOIN에 의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부의 냉동 냉장창고 정비 및 운영사업에 추가 출자(약 13.9억 엔)에 대해 인가함. 이를 통해 JOIN은 해당 사업에 공동 출자하는 카와니시 창고(주)가 추진하는 냉동냉장창고 정비 및 운영 사업의 확장을 지원함.
 - 카와니시 창고(주)와 JOIN은 현지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사업 회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부에서 3온도(냉동·냉장·정온)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음(2017년 1월 24일 국토교통성장관 인가).
 - 자카르타에서 냉동냉장 식품 등의 보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물동량을 약 4배 강화하기 위한 냉동냉장창고 증축에 소요되는 추가 자금을 공동으로 출연함. 또한 JOIN은 영업전략 수립 등의 경영 지원도 계속 실시하고 있음.
 - 카와니시 창고(주)의 출자액은 약 49.7억 엔이며, JOIN출자액은 추가출자액을 합쳐 약 23억 엔임.

□ 시베리아 철도에 의한 일본-러시아-유럽 간 화물 수송 실증 사업의 결과 [12/26]

- 국토교통성에서는 시베리아 철도를 활용하여, 해상운송, 항공운송에 이은 제3의 운송수단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러시아 운송성 및 러시아 철도와 협력하여 시베리아 철도 이용 확대를 위한 대처를 실시하고 있음.
- 2019년 9월~11월에 걸쳐 일본과 유럽 사이에 3건의 화물 운송 실증사업을 실시하여 성과를 검증하였음. 3건의 실증사업으로 확인된 결과로 비용은 해상운송과 비교하여 1.5배 또는 그 이상 소요되었으며, 운송 품질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일부 화물에 대해 흔들림이나 돌발적인 충격이 기록됨.

□ 국토교통성 · 후생노동성의 2020년 예산안 개요 [12/26]

- 건설업 기능자의 약 3분의 1은 55세 이상이며, 타 산업에 비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건설업이 지역의 수호자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건설업을 지탱하는 젊은이의 확보가 급선무임. 특히 젊은이와 여성의 건설업 진입 및 정착 촉진 등에 중점을 두고, 근로 개혁을 촉진하여 매력 있는 직장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인재확보 · 육성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은 계속하여 연계하여 관련 정책을 실시하고, 건설업의 인재확보 및 육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임.
- 2020년 인재 확보 및 육성과 관련한 국토교통성 및 후생노동성의 예산은 인재확보에 약 62억 엔, 인재 육성에 약 9.3억 엔, 매력 있는 직장 만들기에 약 1.1억 엔 등이 설정됨.